

농수산물 수입·유통에 따른 폭리

94.
2.5

재벌기업들이 소유한 유명 백화점 6곳과 10여 개 도·소매상에서 수입농수물을 국산품으로 속여 크게는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됐다.

드러난 혐의는 몇백만원에서 몇십만원에 이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작은 봉지에 나누어 파는 나물·생선·과일·고기 등에서 원산지가 표기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발된 품목이나 금액이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수입농수물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 것에 앞서 본보기로 형식적인 단속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농산물 수입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91년 총 무역수지적자 가운데 농수산물 분야의 적자가 40.8%에 달했고, 92년엔 무려 82.9%가 농수산물 수입 적자였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모두 66억6천만달러의 농수축산물이 수입되어 농어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농민들이 철창에 갇히는 한쪽에서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세계 최대의 농수축산물 수입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당국은 농수산물 수입 홍수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 농수산물값이 오르면 자동수입한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수축산물 수입이 투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과연 수요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수축산물 수출국들은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그린카드제도, 원산지표기 의무화, 조정관세 등의 조치를 인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벌기업들이 앞장서서 농산물 수입·유통에 따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거기 에다가 값싼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아니면 모호한 원산지 표기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 농산물로 국도 뚫이고 나물도 무쳐 먹는 서민들로서는 알고 속고, 모르고 속으며 가격과 품질에서 이중의 사기를 수입·유통업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셈이다.

엇그제 텔레비전 화면엔 유명 백화점의 선물용 갈비·정육세트가 수입 쇠고기로 제작되고 있는 광경이 비쳤다. 지난 1월에 백화점에서 판매된 갈비찜의 총량이 일년 동안 서울에 반입되는 한우 고기의 양과 맞먹는다니, 소비자들이 백화점 '이름'을 믿고 산 특선 한우갈비세트가 그 3분의1 가격에 불과한 수입 쇠고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곧 설을 맞는다. 각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모두 대목을 맞아 선물용 고기·생선, 제수용 나물·과일 등을 산더미처럼 준비하고 판촉에 나서고 있는 오늘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수출입 업무의 규제가 많다고 업살을 부리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좀더 철저하게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며, 수입단계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폭리를 챙기고 국산으로 속이는 일에 대한 엄중한 단속의 손길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